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본문 : 잠언 3:1~10

일시 : 2015. 9. 27. 추석 가정 예배.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또 지금 부모 된 우리가 그러하듯이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들려주며, 후손들의 현재와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들려주셨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된 삶이 모두 다섯 가지로 소개되면서 자녀로 하여금 복된 삶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섯 가지의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장수와 평강의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넷째, 겸손하여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섯째, 풍요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절로 이와 같은 삶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둘째, 인자와 진리를 마음 판에 새겨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셋째,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넷째,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겸손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창고를 가득하게, 즉 부요하고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산다면 우리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2015년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꿀 같은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